

밀알처럼, 들불처럼

강 우림

56점에 37등이라는 성적을 받았다면 당신의 기분은 어떠하겠는가?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이다. 물론 성적에 신경 쓰지 않는 여유만만한 사람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걱정할 것이다. 누구의 성적인가? 그리고 무슨 과목인데 그렇게 점수가 엉망인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성적이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각 나라의 부패인식지수를 측정해 발표한다. OECD의 평균이 69.9점인데 우리는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경제규모가 세계 9위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창피하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세상은 시끄럽다. 언론에서는 매일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한 뉴스가 폭포처럼 쏟아져 나온다. 정치가, 국회의원, 법조인, 기업가, 공무원, 직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세상이다. 사람들은 체념적인 어투로 이 세상을 '비리공화국'이라 부른다. 우리는 우리의 절망감을 나타내는 '헬조선, 금수저, 갑질 횡포'와 같은 단어에 이미 익숙해져있다.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마키아벨리의 경고가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현실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비리의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리, 더 큰 비리를 저질러야 한다. 정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단어가 되었다.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인 나에게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세상에는 온통 돈과 권력에 눈 먼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피에 굶주린 좀비처럼 사람들은 부패에 찌들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가끔씩 언론에서 입시관련 비리 뉴스가 나오면 괜히 입맛이 씹쓸해진다.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인 아이들은 부모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식의 대학입학을 도모한다.

그러나 나같은 흙수저는 온 몸으로 세상에 부딪쳐야 한다. 코피를 쏟으며 밤을 새워 공부해도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늘구멍이다.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괜히 땀만 흘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도 어른이 되면 비리를 저질러야 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반부패 청렴사연을 읽게 되었다.

가슴을 뺑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사연들이었다. 두려움에 가득 차 폭풍우 치는 밤 바다를 향해하는 선장이 등대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같았다. 세상 어느 곳에선가는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었다. 순간적인 이익이라는 유혹을 이겨내고 깨끗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영웅들의 진실한 이야기는 나를 감동시켰다. 1960년대 초

반 한국에 왔던 영국기자가 말했던 '쓰레기통 속의 장미'가 그래도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특히 높은 지위나 권력은 없지만 묵묵히 자신의 삶에 충실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눈에 쏙쏙 들어왔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청렴을 지키는 사연들의 주인공들에게서 연꽃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왔다. 언젠가 절에서 본 연꽃은 더러운 진흙의 썩어가는 물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만들어 우리의 눈과 코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봉투 속에 담긴 소중한 선물(유철민)'은 학생인 나에게 친숙한 내용이었다. 해마다 5월이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걱정하는 부모님을 보게 된다. 용접공 아빠랑 마트 계산원인 엄마보다 선생님 월급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봉투를 줄려고 할까? 많은 선생님들이 당황해하며 거절하는 것을 보고는 더욱 의아했다. 선물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받으면 기분 좋은 일인데 왜 거절할까? 그때는 어려서 그렇게 생각했었다. 나중에야 그것이 굳이 뇌물이라고 하기 보다는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수기에서처럼 진정한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야 진정한 선물이다. 감사의 편지를 썼던 글쓴이의 방법이 현명한 일이다. 나도 스승의 날이나 아버지의 날에는 정성껏 편지를 쓴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정성껏 준비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스승의 날에는 학급 친구들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스승님, 사랑해요!'라는 자막과 함께 동영상이 끝났을 때 글썽거리는 선생님의 눈동자를 보았다.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는 선생님을 보고 친구들과 나는 뿌듯했다.

'썩은 복숭아 찾기(박다정)'는 과일가게 아저씨의 복숭아 속살 같은 깨끗한 마음이 느껴졌다. 썩은 과일을 몰래 넣어주는 비양심적인 과일가게 주인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복숭아를 바꿔주는 멋진 아저씨들이 더 많다. 서로에게 베푸는 양심적인 친절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사회를 밝게 빛나도록 만들어 준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사는 서민들의 모습을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망각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이다. 그들은 가진 것을 누리하고자 할 뿐이지 의무를 실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법을 무시하고 썩은 복숭아를 모르는 척 우리의 장바구니에 집어넣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첫 마음(남 윤영)'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지혜로운 해결책을 보여주었다. 학교 운동장 사용료를 장학금이 아닌 미납된 등록금을 메우는 데 사용하자고 말했던 교장 선생님의 의도는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였다.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였다. 목적이 옳다고 해서 아무런 방법이나 마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 이

야기였다. 정의는 방법과 목적이 모두 옳을 때 실현되기 때문이다.

‘청렴은 가장 멋진 유산!(문 복레)’에서는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용기에 감탄했다. 뇌물을 바치고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열심히 수행하다보면 결국은 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몸소 보여 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권력이나 재산은 결국 먼지처럼 곧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하늘을 우러러 스스로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지키려는 주인공의 모습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쳤다.

잘 익어 향기를 풍기는 포도송이처럼 알알이 재미있고 소중한 수기들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공감할 이야기들이었다.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청렴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에게 안겨진 걱정들은 흙탕물을 흐리는 몇 마리의 미꾸라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일부의 나쁜 행실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은 그러한 짓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친구들 중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어차피 뇌물 한 방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도 있다. 그들은 정정당당한 경쟁보다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볼 뿐이다. 심지어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을 헐뜯거나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입시경쟁에 시달려 이기적으로 변한 도덕불감증에 걸린 청소년들에게 청렴 수기는 타락한 정신에 경종을 울리는 죽비소리와 같았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도덕적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했다. ‘10억을 주면 살인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60%가 넘는 학생들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언제부터인지 돈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런 의식을 품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청소년들이 바로 부정부패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오염되어간다.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부패의 늪에 빠져 익사할 수 있다.

이키주쿠리는 일본의 음식 이름이다. 살아있는 생선의 회를 떠서 제공하는 세트메뉴이다. 이키주쿠리가 다른 점은 살아있는 생선을 손님 앞에서 직접 회를 뜬다는 점이다. 생선은 자신의 살이 한 점씩 베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생선의 살을 베어내면 머리와 내장 그리고 뼈만 남은 생선을 물속에 놓아준다. 생선은 처음에는 물속에서 헤엄치지만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마침내 죽는다. 청소년 때부터 부정부패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키주쿠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세먼지가 뿌연 하늘을 보면 눈도, 마음도 답답하다. 시원한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맑은 하늘이 투명하게 비친다. 사람들은 가을 하늘을 보며 감탄한다. 자연뿐만 아니다. 인간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보면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온다. 약수터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마실 때의 상쾌함을 우리는 청렴한 마음에서 느낄 수 있다.

사람들 마음에 청렴의 밑알이 자리 잡아 싹트면 울창한 거목이 되어 시원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할 것이다. 청렴의 불꽃이 들불이 되면 세상의 부정부패를 태우고 그 재로부터 사람의 향기가 퍼져나는 희망을 싹 틔울 것이다.